

Stephen R. Anderson
The Organization of Phonology

New York: Academic Press, 1974, xviii+317 pp. (\$18.50)

田 相 範

Chomsky와 Halle의 *The Sound Pattern of English* (SPE)는 오래 동안(in print), 혹은 (forthcoming)의 형태로 인용되어 왔고 1968년에 출간될 지음에는 mimeo의 형태로 널리 보급되어 그 내용을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었다. 그리하여 SPE는 새로운 이론의 제시라기보다는 오히려 결산보고적인 의의가 더 컸다. 이 책에서 제안된 이론의 수정이 거의 책의 출간과 때를 같이한 것은 위와 같은 사정에 연유하는 것이다. 다른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작업은 연달아 발표된 논문들과 함께 몇몇 중요한 학위논문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 중에서도 특히 다음 다섯 편이 중요할 것이다.

Kiparsky, P. (1965) *Phonological Change*. MIT.

Anderson, S. (1969) *West Scandinavian Vowel Systems and the Ordering of Phonological Rules*. MIT.

Howard, I. (1972) *A Directional Theory of Rule Application in Phonology*. MIT.

Johnson, C.D. (1872) *Formal Aspects of Phonological Description*, The Hague: Mouton. MIT.

Stampe, D. (1972) *How I Spent my Summer Vacation*. University of Chicago.

Kiparsky (1965)와 Stampe (1972)를 제외한 나머지 세 편은 規則適用에 관한 것들인데 특히 그 중에서도 Anderson (1969)은 局部順序 (local ordering)라는 새로운 이론을 제안한 것으로 주목을 받았던 것이다. 지금부터 살펴보려고 하는 Anderson (1974)는 이 局部順序와 Anderson (1971)에서 제안된 修正同時適用規約(RSAC: Revised Simultaneous Application Convention)이라는 두 개념을 주축으로 하여 SPE 이후의 이론을 검토한 SPE이래의 가장 중요한 이론서이다.

一章은 音韻論 관계의 책이 늘 그렇듯이 소리 전반에 걸친 관찰이 주가 되었다.

二章에서는 Saussure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중요한 이론가들의 입장을 검토하고 있다. Saussure로부터 시작하여 Post-Saussurean structuralist들, 특히 그 중에서도 Trubetzkoy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어서 Boas, Sapir가 다루어지고, Bloomfield에서는 종래의 엄격한 phonemic representation으로 부터의 두가지 이탈, 즉 morphophonemic representation과 neutralization의 문제가 주로 검토되고 있다. 끝으로 Chomsky에 의해서 taxonomic phonemics라고 불리운 Post-Bloomfieldian phonology에서는 level mixing의 문제가 주로 다

루어지고 있다.

三章은 二章에서 소개 검토한 taxonomic phonemics에 대한 공격인바 주로 Halle (1959)와 Chomsky(1964)에 의존하고 있다. 基底形과 表面形 사이에 phonemic representation이라는 중간 단계를 두는 것이 어떻게 文法을 비능률적으로 만드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바다. 이어서 그는 phoneme설정에 대한 종래 言語學의 세가지 동기를 들고 그것이 근거없음을 증명하고 있다.

四章은 音韻規則의 當爲性에 관한 부분이다. 우리는 규칙적인 變異라는 현상을 形態論的으로, 또는 音韻的으로 파악할 수 있음을 알고 있고 또 직감적으로 후자가 더 우리의 言語의 直感에 가까운 것도 알고 있으나 Anderson의 요령 있는 논술엔 새삼 감탄하게 된다.

五章부터 十二章까지는 주로 規則順에 관한 것이다. 五章은 어찌하여 規則들이 일제히, 또는 順序없이 적용되지 않고 일정한 順序에 따라 適用되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 順序라는 것이 言語마다 특유한 것인가 아니면 汎語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던지고 있다. 五章 끝에 가서 SPE에서 제안된 線形順序規約(linear ordering)을 소개하고 六章부터 十二章까지는 이 規約를 지킬수 없는 경우들을 들어 그의 局部順序의 必要性(necessity)을 증명하려고 한다.

우선 六章에서는 評價尺度(evaluation measure)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지어 規則의 簡單性(simplicity)에 의한 言語現象의 一般性(generality)의 포착의 문제를 논하고, 이를 가능케 해주는 記號의 문제, 특히 { }의 정당성에 대한 찬반의 이론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까지 { }記號에 대해서는 각기 贊反을 포함한 Kiparsky(1968)와 McCawley(1971)의 두편의 논문뿐이어서 사실 우리는 세심한 검토없이 { }記號를 함부로 사용해온 셈이다. 그런 뜻에서 Anderson의 면밀한 검토는 소중하다.

六章서부터 線形順序規約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간다. 이미 SPE에서조차 엄격한 線形順序規約의 준수는 불가능했던 바 우선 α , ()라는 두 記號의 사용이 그렇다. 이를 망라하는 α 는 두개, 혹은 그 이상의 規則을 묶는데 사용되는데 그 規則들은 차례로 적용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 마찬가지로 여러 自然言語에서의 증거들이 ()로 묶인 規則들은 차례로 모두 接合的으로(conjunctively)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중의 하나만 離接的(disjunctively)으로 적용되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사실은 線形順序規約에 대한 근본적인 반증은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 때 α 나 ()에 묶인 두 規則의 離接的 適用이란 그 두 規則 사이에만 국한된 문제이며, 이 規則들과 다른 規則들과의 상대적인 順序는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점에 있어서는 八章에서 취급되는 鏡像規則(mirror image rule)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鏡像規則을 接合的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離接的으로 적용해야 하는지는 아직도 분명히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설사 離接的으로 적용해야 하는 경우에도 그 規則과 다른 規則들과의 상대적인 規則順은 변하지 않는다.

九章에서는 SPE(344)에서 제안된 同時適用規約(Simultaneous Application)을 검토하여 同時適用規約이란 必然性を 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規約를 사용함으로써 놓치게 되는 여러가지 一般性を 지적하고 있다. 그 대안으로 그는 音韻規則을 그것이 변화시킨 결과에 다시 적용할 수 있는 反復適用(iterative application)을 제안한다. 이 反復適用의 타당성은 이미 여러 군데서(Howard 1972; Johnson 1972) 지적되었지만 Anderson(1969)에서의 선

구적 발언은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이 反復適用規約은 Howard(1972)의 술어를 빌리면 focus와 determinant가 다른 경우, 즉

$$(1) a \rightarrow o / \text{---} (C_o a) * C o i$$

따위의 경우가 自然言語에는 없다는 주장을 내포한다.

SPE에서 제안된 線形順序規約이란 결국 다음 네가지 조건을 의미한다.

- (2) (a) Connectedness
- (b) Irreflexivity
- (c) Antisymmetry
- (d) Transitivity

反復適用은 이 가운데 두번째 조건인 Irreflexivity를 어기고 있는 경우이다.

이 反復適用이라는 것도 앞서 언급한 離接的適用의 경우들과 마찬가지로 線形順序規約에 대한 違背의 정도는 그리 크지 않다. 왜냐하면 反復的適用을 받는 規則은 위의 Irreflexivity의 조건을 어기고 있긴 하지만 그 規則과 다른 規則들과의 상대적 관계는 변하지 않고 있다. 보다 근본적인 線形順序規約에 대한 부정은 세번째(Antisymmetry)와 네번째(Transitivity) 조건의 違背에서 발견될 수 있을 것이다. 조건(2c)를 충족시키려면 어떤 規則 A와 B가 어떤 때는 A—B의 順序로, 또 어떤 때는 B—A의 順序로 적용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또 만약 조건(2d)를 충족시키려면 세개의 規則 A, B, C가 있을때, 規則 A와 B가 A—B의 順序로, 또 規則 B, C가 B—C의 順序로 적용된다면 規則 A와 C는 절대로 C—A의 順序로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만약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은 움직일 수 없는 線形順序規約에 대한 反證이 될 것이다. Anderson은 이런 경우들이 실제로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

規則順에 대한 Anderson의 태도는 다음 두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規則順은 두 規則에 대해서만 의미가 있다. 둘째, 規則順의 결정이란 그 規則 둘만 놓고는 별 의미가 없고 그것이 적용될 string과의 三者의關係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이 때의 規則順은 自然規則順(natural order)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다. 自然規則順이 무엇인가는 잠시 미뤄 놓는다면 위와 같은 두개의 입장을 따르게 될 때 規則들이 적용될 string의 모양에 따라 그 順序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쉬 이해할 수 있다.

自然規則順이란 다음아닌 Kiparsky(1968)의 最多適用의 法則(The Principle of Maximal Application)을 共時言語學에 도입한 것으로서, 두개의 規則과 그것들이 적용될 하나의 string이 주어졌을 때 이 두 規則의 順序는 위의 法則을 만족시키는 順序가 된다는 것이다. 즉 最大限으로 給外(bleeding)의 관계를 줄이고 最大限으로 給入(feeding)의 관계를 늘리게 되는 順序를 말한다. 만약에 이 法則으로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예를 들어 相互給外(mutual bleeding)의 관계에 있는 두 規則에 대해서는 도리없이 文法에 規則順을 明記하는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그의 局部順序規約이란 가능한 한 自然規則順序를 따르고 그렇지 못할 때에는 明記된 順序에 따른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의 局部順序規約은 十二章에서 다시 보강된다.

十一章에서는 線形順序規約의 마지막 조건인 Transitivity를 어겨야 하는 경우들을 보여주고 있다.

十二章은 주로 局部順序規約의 必然性的의 증명에 바쳐지고 있다. 그는 이 목적을 위해서 Anywhere Rule, KSN(1974) model, 그리고 Chafe(1968)의 Persistent Rule을 차례로 검토한다. 그는 Kisseberth and Kenstowicz(1961)가 말하는 無標給外規則順(unmarked bleeding order)에 주목하여 自然順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原則은 自體保存原則(The Principle of Self-Preservation)이며 이 原則은 앞서 말한 最多適用의 原則도 무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自體保存原則은 두 規則이 그 어느 하나가 쓸모없게 되는 順序로 배열되는 것을 막는다. 그리고 最多適用의 原則으로도 順序 결정이 어려울 때에는 透明・不透明의 原則(Transparency/Opacity)으로 順序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한 비판은 先驗的(a priori)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 많은 문헌에 제시된 그 듯한 規則順은 Anderson이 주장하는 局部順序의 原則에 입각하여 전부 검토해 보는 길밖에 없으나 지금 筆者에게 그런 여유가 없는 것이 유감일 따름이다. 다만 우연히 접어든 다음과 같은 흔히 알려진 Sea Dayak의 경우를 Anderson은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그의 規約에는 아직도 더 많은 制約이 가해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Sea Dayak에는 (3), (4)와 같은 두 현상이 있다.

$$(3) V \rightarrow \tilde{V} / N \text{---}$$

$$(4) \begin{bmatrix} b \\ d \\ g \end{bmatrix} \rightarrow \phi / \begin{bmatrix} m \\ n \\ \eta \end{bmatrix} \text{---}$$

規則 (3)은 鼻音이 후속하는 母音을 鼻母音으로 만들며 規則 (4)는 有聲破裂音을 調音點이 같은 鼻母音 뒤에서 削除한다. 規則 (3), (4)는 흔히 볼 수 있는 自然스러운 規則들이다. 規則 (3)은 /naga/ 'to straighten'에 걸려 [nāpā]와 같은 表面形을 만든다. 그러나 /nagga/ 'to set up a ladder'와 같은 경우에는 規則順이 문제가 된다. (5)가 보여주듯 規則順을 달리할 때 각기 다른 表面을 얻게 된다.

(5) (a) /nagga/ nāgga (3) nāpa (4) [nāpa]	(b) /nagga/ naŋ a (4) nāŋ ā (3) *[nāpā]
--	--

Anderson의 規約이 과연 (5a)를 예언해 줄 것인가? 우선 그가 내세운 세 原則을 그가 정한 等級(hierarchy)에 따라 검토해 보기로 한다. 첫째, 規則 (3)과 (4)는 (5a), (5b) 모두에 걸리고 있음으로 첫째 原則인 自體保存의 原則은 여기서는 결정의 요인에서 제외된다. 둘째, 最多適用의 原則도 쓸모가 없다. 오히려 이 原則은 (5b)를 추천할 것이다. 우선 (5a), (5b) 모두에서 規則이 적용된 산술적 합계는 각기 둘이라는걸 지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規則順 (3)-(4)의 관계는 그가 말하는 中性順(Neutral Order: KSN(1974)의 Counter-feeding)임에 반하여 (5b)에서의 (4)-(3)의 관계는 給入의 관계이다. 즉 /nagga/ 그 본래의 모습으로는 規則 (3)이 마지막 /a/에 걸리지 않을 것을 規則 (4)가 걸림으로서 規則(3)이 걸리게 되었다.

Anderson의 마지막 原則인 透明・不透明의 原則은 앞의 두原則 가지고는 해결이 가능치

않을 때에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最多適用의 原則으로 해결이 가능한(비록 잘못된 해결이냐 마) 경우에는 더 이상 살펴 볼 필요가 없다. 참고로 이 原則을 적용해 봐도 결과는 마찬가지이다. 왜냐하면 옳은 表面形이 不透明하며 오히려 틀린 (5b)가 透明하기 때문이다. (5a)의 表面形[nāpa]의 두번째 [a]는 분명히 規則 (3)을 위반하고 있다.

이런 어려움 때문에는 Kisseberth(1973)는 規則 (3)을 Global Rule로 하여 (5)의 경우를 다루자고 제안하고 있다. 다시 規則 (3)을 (6)처럼 고쳐 規則 (4)가 걸리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케 하자는 것이다.

$$(6) V \rightarrow \tilde{V} / \left[-\text{Rule } \overset{N}{(4)} \text{ DERIVED} \right] \text{ ---}$$

그러나 Kisseberth의 제안을 면밀히 검토해 본 우리는 그가 무엇인가 착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Rule (4) DERIVED]라는 diacritic은 어느 한 segment에만 표시되는 것이 아니고 그 string 전체에 대해서 표시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의 제안은 規則順을 (5b)와 같이 하는 경우 두번째 /a/가 鼻音化하는 것은 막아주지만 첫번째 /a/를 鼻音化시키지 못해 *[napa]와 같은 잘못된 表面形을 生成하게 된다.

Anderson은 Global Rule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그러한 그에게 또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方言의 차이를 같은 基底形에 대한 두개의 같은 規則의 다른 規則順에 의한, 흔히 알려진 설명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이다. 두개의 規則이 주어질 때 그의 規約이 예언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두개의 規則順 가운데 어느 하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한가지 덧붙일 것은 十二章에서 제시된 自體保存原則과 透明・不透明의 原則은 그의 학위논문, Anderson (1969)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던 것인데 Kisseberth and Kenstowicz(1971) 따위에 자극되어 새로 보완한 부분이다.

十二章에서 規則適用의 algorithm으로 제안된 修正同時適用規約(RSAC: Revised Simultaneous Application Convention)은 근본적으로 Anderson(1971)과 다른 바가 없다. 앞서 局部順序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Howard (1972)등의 공격에 자극되어 最多適用의 原則과 透明不透明의 原則을 도입하여 보강한 것이다.

RSAC를 알아보기 위해 우선 다음과 같은 佛語의 예를 살펴보자.

$$(7) /...vudre\underset{1}{\#}k\underset{2}{\#}s\underset{3}{\#}k\underset{4}{\#}l\underset{5}{\#}b\ddot{e}do.../ \\ /...voudrais\ que\ ce\ que\ le\ bedeau.../$$

이 string에는 다섯 개의 /ə/가 있는데 이들은 (8)과 같은 規則에 의해 選擇的으로(optionally) 削除될 수 있다.

$$(8) \text{ə} \rightarrow \phi / [+syll] (\#) C \text{ ---}$$

이 때 削除될 수 있는 부분을 -, 그렇지 않은 부분을 +로 표시 한다면 다음과 같은 열 세 가지 발음이 가능하다.

도표 (9)가 말해주는 원칙은 간단하다. 즉 서로 인접한 두개의 /ə/를 削除하지 않는 한 어느 /ə/를 削除해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이때 문제가 생기는 까닭은 대부분의 /ə/가 削除를 일으키는 determinant인 동시에 스스로가 削除되어야 하는 focus이기 때문이다. 단약에 앞서 제시한 削除規則(8)을 SPE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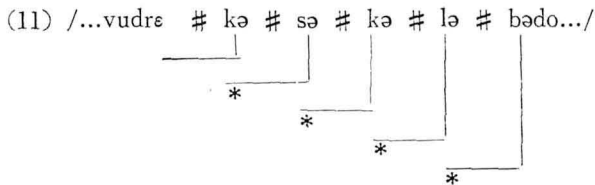
(9)

1	2	3	4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안한 대로 다섯개의 /ə/에 동시에 적용한다면 제일 처음의 /ə/만 빼놓고는 모두 削除되고 말 것이다. SPE의 同時適用規의을 살리려는 노력에서 Anderson은 (10)과같은 algorithm을 생각해 냈다.

- (10) (a) 規則이 적용될 수 있는 좁에는 동그라미를 치고 그 환경에는 밑줄을 그을 것.
 (b) 만약 그 規則이 選擇規則이라면 規則을 적용하지 않을 segment와 환경을 동시에 지워버릴 것.
 (c) 만약에 밑줄 부분에 focus가 아닌 동그라미를 친 segment가 있으면 그 밑에 *표를 하고 最少限의 *와 그것을 포함하는 밑줄을 지울 것.
 (d) 그리고는 規則을 동시에 적용할 것.

이 복잡한 algorithm이 적용되는 모양을 (11)이 보여준다.



이 때 겹치는 밑줄이 없도록 지울수 있는 最少의 밑줄은 둘째와 넷째 밑줄이다. 첫째 셋째, 다섯째의 밑줄을 지울 수도 있으나 그렇게 되면 먼저번 보다 하나 더 지우게 된다. 둘째 넷째 밑줄을 지우고 規則(8)을 동시에 적용하면 첫째, 셋째, 다섯째의 /ə/가 削除된다. 이 때 한가지 明記해야 할 일은 規則(8)이 反復規則이 아니라는 점이다. 만약 反復해서 規則을 적용한다면 削除되서는 안될 /ə/까지 削除하게 된다.

여기서 현명한 독자는 의당 다음과 같은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즉 (11)에서 겹치는 밑줄의 수는 奇數인 다섯이라는 점이다. 이 때 밑줄이 겹치지 않도록 지워버릴 수 있는 最少의 밑줄은 두번째와 네번째 밖에 없다. 그러나 만약 겹치는 밑줄의 수가 偶數인 둘이나 넷

이라던 어느 밑줄을 지울 것인가? 들인 경우는 어느 쪽을 지우든지, 또 넷인 경우에는 첫째 셋째, 또는 둘째, 넷째 어느 쪽을 지우든지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 점을 Anderson(1971)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은건 아니어서 反復規則인 경우에는 그 결과가 最多適用의 原則을 만족시키도록 밑줄을 지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12)와 같은 Acoma의 規則을 살펴 보자.

$$(12) V \rightarrow [-\text{accent}]/[+\text{obst}] \text{ ______ } [+\text{obst}] C_0 \begin{bmatrix} +\text{syll} \\ +\text{accent} \end{bmatrix}$$

가령 規則 (12)를 /k'ápišúma/와 같은 基底形에 적용한다고 하자. RSAC에 의해 (13)처럼 분석될 것이다.

$$(13) \quad \begin{array}{c} /k'ápišúma/ \\ | \quad | \\ \text{---} \quad \text{---} \\ | \\ * \end{array}$$

밑줄의 수가 둘임으로 어느 것을 지워야 할지 알수 없으나 規則 (12)가 反復規則임으로 最多適用의 原則에 맞도록 하자면 두번째 밑줄을 지워 /á/의 accent를 지우고 다시 規則 (12)를 反復適用하여 /i/의 accent를 지워 [k'ápišúma]를 얻어야 한다. 만약 첫번째 밑줄을 지우면 다시는 規則 (12)를 적용할 수 없어 *[k'ápišúma]를 얻게 된다. Anderson (1971)에서는 反復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規則의 경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이 책에 와서 비로서 이런 경우에는 透明・不透明의 原則을 적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즉 透面한 表面形을 얻도록 밑줄을 지우라는 것이다.

이 algorithm의 경우도 앞서 언급한 局部順序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주장의 타당성을 自然言語의 경우에서 經驗적으로 (empirically) 확인해 보아야 한다. Anderson의 RSAC를 확인할 수 있는 예는 그리 많지 않으나 다행히 後期中世國語(1400—1600)에서 적당한 예를 찾아 볼 수 있다.

中世國語에 母音調和 現象이 있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母音調和가 있는 다른 言語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語尾의 母音이 語幹末 母音에 同化하는 것이지만 한가지 특이한 점은 이때 語幹의 母音이 語尾의 母音전부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母音으로 시작되는 語尾의 첫번째 母音만 同化시킨다는 사실이다. 뒤집어 말하면 語尾가 陽・陰이 다른 둘 이상의 母音으로 되었거나(예를 들어 /-ʌlu/(-으로)), 혹은 子音으로 시작되었을 때, 예를 들어 /mut+zʌβ+ʌnʌl/의 경우, 그 語尾에 후속하는 語尾의 母音은 語幹의 母音과는 상관없이 앞선 語尾의 마지막 母音에 同化하여 [mutzʌβʌnʌl] (문즈브늘)이 된다.

Anderson의 주장을 검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예를 살펴 볼 수 있다.

$$(14) (a) /psə+um+ʌi/ \rightarrow [psumʌy] \text{ (쁘메)}$$

$$(b) /tʌl+um+ʌl/ \rightarrow [tʌlumʌl] \text{ (더루플)}$$

RSAC에 의하면 (14 a), (14 b)를 각각 (15 a), (15b)처럼 분석할 수 있다.

$$(15) (a) \quad \begin{array}{c} /psə+um+ʌi/ \\ | \quad | \\ \text{---} \quad \text{---} \\ | \\ * \end{array} \quad (b) \quad \begin{array}{c} /tʌl+um+ʌl/ \\ | \quad | \\ \text{---} \quad \text{---} \\ | \\ * \end{array}$$

母音調和規則은 反復規則임으로 Anderson의 제안이 맞다면 (15 a)의 경우에는 첫번째 밑줄을 지우고, (15 b)의 경우에는 반대로 두번째 밑줄을 지우는 것이 最多適用의 原則에 부합하는 길인데 그렇게 되면 (16 a)가 보여주듯 /psə+um+ɜi/에서 *[psəmay]를 얻게 된다.

- (16) (a) /psə+um+ɜi/ (b) /tɜl+um+ɜl/
- | | | | | | | | |
|-----|----|----|-----|-----------|----|----|----|
| psə | um | ɜi | VH | tɜl | um | ɜl | VH |
| psə | um | ai | VH | tɜl | um | əl | VH |
| psə | um | ay | GF | [tɜluməl] | | | |
| ps | um | ay | MVD | | | | |
- *[psumay]

(GF=Glide Formation Rule; MVD=Mid-Vowel Deletion Rule)

마지막으로 우리는 母音調和規則이 反復規則이 아니라고 해볼 수 있다. 그 때 지켜야 할 것은 透明・不透明의 原則이다. (15)에서 透明形을 얻기 위해서는 (15 a)에서는 두번째 밑줄을 지워야 하지만 (15 b)의 경우는 어느 쪽을 지우든지 (17 b)가 보여 주듯 不透明形이 나온다.

- (17) (a) /psə+um+ɜi/
- | | | | |
|-----|----|----|-----|
| psə | um | ɜi | VH |
| psə | um | ɜy | GF |
| ps | um | ɜy | MVD |
- [psumɜy]
- (b) /tɜl+um+ɜl/ /tɜl+um+ɜl/
- | | | | | | |
|------------|----|----|------------|--|----|
| tɜl | um | ɜl | | | VH |
| *[tɜlumɜl] | | | *[tɜlumɜl] | | |

그 이유는 간단하다. 中世國語의 母音 調和는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차례로 적용되어 나가는 規則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反復的規則인 母音調和規則이 첫번째 적용될 때 focus이던 것이 두번째 적용될 때에는 determinant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15)의 경우 母音調和規則이 反復規則이든 아니든 간에 Anderson의 주장을 만족시킬 수 없음을 알았다. 물론 (15)의 예들은 母音調和規則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反復해서 적용하면 필요한 表面形을 얻을 수 있다. Anderson이 Johnson(1972)을 부정하는 근거가 Acoma의 規則 (12) 하나인 바 아직 어느 한 쪽을 두둔하고 나서기에는 재료가 너무 빈약하다.

十四章은 요즈음 문제되고 있는 音節境界를 다루고 있다. 지금까지의 音韻規則 적용의 최소단위는 形態素였으나 Anderson은 이를 다시 세분하여 音節까지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音節境界가 基底形・表面形 모두에서 필요한 예를 보여 주고 있으며 이리하여 포착이 가능한 一般性을 들고 있다. 특히 이 문제를 高低(pitch), 有聲音化((voicing), 帶氣音化(aspiration)등과 결부시켜 논하고 있는바 이 문제는 앞으로 音韻論의 중요한 과제로 삼아야 할 줄 안다. 특히 初聲・中聲・終聲등 訓民正音이 완전히 音節의 개념에서 출발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聲調의 숙제들을 이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Anderson

은 한걸음 더 나아가 segment를 반으로 나누어 기술하는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다.

十五章은 Stanley(1967)가 취급한 形態素構造條件(Morpheme Structure Condition)을 다루고 있다. 그는 Stanley의 제안이 만족스럽지 못함을 지적하고 이의 대안으로 내놓은 SPE의 marking convention도 근본적으로는 Stanley의 제안과 다를 바가 없으며 自然性(naturalness)이라는 문제는 이처럼 formalism의 조작만으로는 나타낼 수 없다고 주장한다.

SPE 이래로 논문집은 무수히 출간되었으나 한 권으로 된 이론서로는 이 책이 처음이며 또 제일 중요한 존재가 될 것이다. 문제를 다루는 저자의 태도는 이 책이 그의 학위논문의 개정판이라는데서 연유하겠지만 계몽적인 책의 저자답지 않게 진지하다. 도처에서 볼수 있는 we leave this matter open for further research라는 문귀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그가 좀 더 광범위하게 요즈음 문제되고 있는 이슈들을 다루었었으면 하는 사실이다. 아무튼 이 책은 Schane(1973)이나 Hyman(1975)을 마친 독자들에게는 가장 안정맞춤의 길잡이가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 Anderson, Stephen R. 1969. West Scandinavian Vowel Systems and the Ordering of Phonological Rules. MIT Dissertation.
- _____. 1971. On algorithms for applying phonological rules. Quarterly Progress Report, MIT Research Laboratory of Electronics. 103. 159-64.
- _____. 1974. The Organization of Phonology. New York: Academic Press.
- Chafe, Wallace L. 1968. The ordering of phonological rules. IJAL 34. 115-36.
- Cheun, S.B. 1975. Phonological Aspects of Late Middle Korean. Seoul: Pan Korea Book Corporation.
- Chomsky, Noam. 1964. Current Issues in Linguistic Theory. The Hague: Mouton.
- Chomsky, Noam and Morris Halle. 1968. The Sound Pattern of English. New York: Harper and Row.
- Halle, Morris. 1959. The Sound Pattern of Russian. The Hague: Mouton.
- Hyman, Larry M. 1975. Phonology: Theory and Analysis.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 Howard, Irwin. 1972. A Directional Theory of Rule Application in Phonology. MIT Dissertation.
- Johnson, C. Douglas. 1972. Formal Aspects of Phonological Description. The Hague: Mouton.
- Kiparsky, Paul. 1965. Phonological Change. MIT Dissertation.
- _____. 1968. Linguistic universals and linguistic change. In Emmon Bach and Robert T. Harms, eds., 170-202.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 Kisseberth, Charles W. 1963. Is rule ordering necessary? In Braj B. Kachru et al., Issues in Linguistics: Papers in Honor of Henry and Renée Kahane. 418-41.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 _____. Charles and Michael J. Kenstowicz. 1971. Unmarked bleeding orders. *University of Illinois Studies in the Linguistic Sciences* 1 : 1.8-28.
- Koutsoudas, Andreas, Gerald Sanders, and Craig Noll. 1974. The application of phonological rules. *Language* 50.1-28.
- McCawley, James D. 1971. On the role of notation in generative phonology. Reproduced by IULC.
- Schane, Sanford A. 1973. *Generative Phonolog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Stampe, David. 1972. *How I Spent My Summer Vacation*. University of Chicago Dissertation.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접수 : 1976. 6. 4)